

2023. 3. 20.(월) 10:00

제1차 본회의

제30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10분 자유발언



행정위원회 김 현 수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민과 관광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은 오는 2026년 개최되는 ITS 세계총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스마트 교차로, 돌발상황 검지기, 그리고 주차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등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ITS 세계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강릉시는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갖춘 ‘교통 복지도시’로 우뚝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편하고 안전하게 걷고, 운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교통 행복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KTX 강릉선 개통 이후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강릉선은 연일 매진이고 강릉역 방문객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KTX를 타고 강릉역에 방문한 관광객이 주로 먼저 찾는 곳은 어디일까요?

중앙시장 월화거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강릉역에 내려서 중앙시장까지 여행 캐리어를 끌면서 걷거나 킥보드를 타고 가는 관광객들은 많지 않습니다.

도보로 이동하는 몇몇 여행객들은 캐리어를 끌고 보행자 신호도 없는 왕복 4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가로질러야 하고, 그렇게 옥가로를 걸어 옥천오거리에 이르러서는 회전교차로를 향해 달려오는 차들을 피해 가며 또다시 넓은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를 두세 번씩 건너가는 아슬아슬한 광경까지 보입니다.

이는 관광객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강릉시민들 역시 왕복 5차로, 6차로 도로를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하기 때문에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는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옥천오거리 및 강릉역육거리 ‘원형육교’ 건설을 제안드립니다.

원형육교는 어느 방향에서든 편하게 육교에 올라 원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강릉역과 중앙시장을 오고가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보행자들이 원형육교를 이용함으로써 회전교차로의 차량 흐름도 한결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원형육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면 강릉역에 내린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마주보게 될 강릉시 대표 야간관광 랜드마크로써, 강릉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관광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만성적인 주차난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는 1.143대로 전국 평균인 1.076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영 주차장의 적절한 확보가 없다면 시민들과 관광객이 극심한 주차난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구나 옥천동, 중앙동, 교1동 일부지역과 같은 구도심으로 눈을 돌려보면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행에 불편함을 겪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크게 위협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해당 사고는 진입로인 골목길에 불법주차 차량이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시간을 놓쳐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2월 강릉시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 용지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빈집이 철거된 부지를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해 도시미관 향상 뿐만 아니라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주민 쉼터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큰 호평을 얻고 있는 만큼 강릉시에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행자 수에 비해 인도가 현저히 넓은 곳은 과감히 줄여 노상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지 인도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이륜차들로 시민들의 보행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겠지만, 근본적인 대책, 즉 주차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차공간 해결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이를 참고해 보행자의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도를 축소해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강릉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관광 도시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만큼 강릉 구석구석 운행되는 차량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주차문제 발생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강릉,

주차 스트레스 없는 강릉,

‘교통 복지도시’와 더불어 ‘교통 행복도시’가 될 수 있는 강릉을 위해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릉시민들에게는 일상생활의 편안함을,

관광객들에게는 강릉에 있는 동안 만큼은 주차 고민없는 아름다운 도시로 기억에 남길 바랍니다.

이상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